

해리스 자극해도 트럼프 평정심 유지할까

美대선 TV토론 전략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해리스, 화돋우며 트럼프 '자폭' 유도...공정 이미지 구축 부담 트럼프, 경제·이민 정책 집중 유리...참모 조언 따르지 미지수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한국시간 오전 10시) 첫 대선 TV토론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이번 토론은 선거일까지 60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치르는 데다 현재로서는 추가 토론 일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특히 그 부담은 단 한번의 토론 패배 때문에 후보 자리에서 물러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한 해리스 부통령에게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마한 지 두 달도 안 된 해리스 부

통령은 이번 토론에서 '존재감 없는 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씻어내고 유권자에게 자신만의 확실한 색깔과 비전을 제시하는 게 과제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자책골' 덕분에 앞선 토론에서 쉽게 이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해리스 부통령을 상대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정책 현안에 집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토론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한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기 파괴적인 본능"을 끌어내면서 자신을 "차분하고 대통령다운" 후보로 내세우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논란이 될만한 발언을 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도록 자극하면서 자신은 그와 차별화되는 정책 구상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2016년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NYT 인터뷰에서 "그녀가 가까이 누워서 안 되고 그를 낚아야 한다"면서 "내가 그는 '러시아의 꼭두각시'라고 했을 때 그는 무대에서 그저 식식거리기만 했다"고 회고했다.

해리스 부통령 측은 그녀가 검사 시절 법정에서 배심원단을 설득하면서 체득한 자제력, 타이밍, 유머 감각 등의 기량을 활용해 유권자와 교감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공략 포인트를 예상해 대비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 본인이다.

참모들은 그에게 "심술궂은 불한당 트럼프"(mean bully Trump)가 아닌 "유쾌한 트럼프"(happy Trump)가 돼야 한다며 토론에서 인신 공격이 아닌 정책에 집중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상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더 후한 점수를 준 경제와 국경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현 행정부의 부통령인 해리스 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공략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는 미지수다.

그간 유세에서 그는 정책보다 인신 공격에 더 집중했고 해리스 부통령의 인종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일부 도를 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참모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뿌리깊은 경멸감을 표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과 1차 토론에서 과도한 말 걸기와 비방으로 토론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은 뒤 2차 토론에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

파푸아뉴기니 오지 방문

아시아·오세아니아 4개국 순방에 나선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8일(현지시간) 두번째 방문국인 파푸아뉴기니에서 대규모 야외 미사를 집전함에 이어 오지 정글 지역을 방문했다. <사진> 교황은 이날 한 축구 경기장에서 신자 3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미사 강론을 통해 "여러분은 신앙이나 제도화된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오늘도 여러분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미사 후 호주 군용기를 이용해 파푸아뉴기니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오지 정글 지역 바니모로 이동, 아르헨티나 출신 선교사들과 신자들을 만났다. 군용기에 싣고 간 의약품 등 생필품도 전달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으로 꼽히는 바니모의 주민 약 12만명은 수돗물과 전기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황이 바니모의 대성당에 도착하자 성당 앞에 미리 모여 있던 신자 2만여명이 노래와 춤으로 환영했다. 교황은 현장에서 건네주는 기필 모자를 쓰기도 했다.

그는 무대에 올라 선교를 위해 일하는 이들을 치하하는 한편 신자들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파푸아뉴기니에서 자주 일어나는 부족간 경쟁과 폭력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베네수엘라 대선 후폭풍 속 야권 지도자 스페인 망명

'마두로 3선' 개표 조작 논란...야당 맞수에 구속영장

베네수엘라에서 대선 조작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에 맞선 야권 지도자 에드문도 우루티아가 곤살레스(75)가 스페인 망명을 택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텔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성명을 내고 "카라카스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에서 며칠간 자발적 난민으로 지내던 야당 당원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가 조국을 떠나 그 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조국의 평온함과 평화를 위해' 곤살레

스의 출국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도 곤살레스가 '자신이 요청한 대로' 스페인 공민기로 스페인으로 날아왔다고 확인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스페인 정부는 모든 베네수엘라인의 정치적 권리와 신체 보전을 약속한다"고 적었다.

이날 네덜란드 외무부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대선 이튿날 곤살레스 측 요청에 따라 그를 수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친여당 성향의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28일 투표 종료 6시간 만에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의 3선 확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야권 후보 곤살레스의 승리를 예측한 서방 조사기관의 출구조사와 엇갈리는 데다 선관위가 개표 참관을 거부하고 실시간 상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부정선

거 의혹이 일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대선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베네수엘라 법원은 곤살레스에 대해 권력찬탈, 정부 전복 음모,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 2일 발부했다.

서방이 실질적 대선 승리 후보로 간주하는 곤살레스가 베네수엘라 체포 위협에 결국 망명길을 택하면서 마두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나이지리아서 유조차·트럭 충돌

사고 폭발로 최소 48명 사망

나이지리아에서 트럭과 정면충돌한 유조차가 폭발하면서 최소 48명이 숨졌다.

지난 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나이저주 비상관리청은 이날 아가이 지역에서 유조차가 트럭과 정면충돌해 폭발했다면서 지금까지 48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조차가 신고 가던 소 50여마리도 죽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